

넓은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마음은  
춤춘다

2023. 2. 16. (목) 19:40 - 21:40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신청기간** 2023. 2. 7.(화) 10:00 ~ 2. 15.(수) 12:00

**신청인원** 486명 [1인 2석까지 선착순 예매]

**대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중·고등학생 및 교직원

**신청방법**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홈페이지(www.gew.kr) 예약





## 우리 사회가 가진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유머와 애정을 담아 풀어낸 작품!

등장 인물들의 에피소드를 통해 사회가, 또 개인이 가진 각자의 아픔을 직면하고 그것을 담담하게 들려주는 작품으로,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에 떠오른 무지개처럼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아픈 현실 속에도 희망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가족의 가치와 휴머니즘, 치유의 카타르시스를 느낄수 있도록 최고의 명품 배우들이 연기하는 웃음과 눈물의 드라마에 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 과연 마지막 상영회는 무사히 열릴 수 있을까?

### SYNOPSIS

충청도 어느 소도시 변두리에 폐관을 앞둔 영화관 '레인보우 씨네마' 영화관의 폐관을 계기로

극장주 조한수와 초대 주인 조병식, 한수의 아들 조원우, 3대가 함께 모여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눈다.

누군가에겐 잠깐 비를 피하는 공간이었고 또 누군가에겐 첫사랑의 설렘이기도 했고, 표 한장으로 세계여행을 할 수 있는 놀이공원이었다. 영화관이 곧 폐관된다는 소식에 하나둘씩 특별한 장소였던 '레인보우 씨네마'로 찾아와 북적이기 시작한다.

다들 뭔가 조금씩 틀어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마음속에 사연들은 잠시 묻어 둔 채 곧 다가올 마지막 상영회를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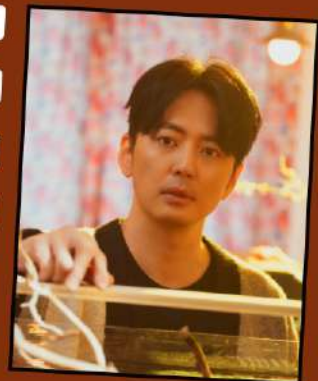
과거의 일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며 점점 복잡하게 얽히고설켜서 나중에는 서로의 상처를 헤집고 꺼내 물어뜯는다. 이내 폭풍의 하룻밤으로 영화관은 아수라장이 되는데, 과연 마지막 상영회는 무사히 열릴 수 있을까?



신 구  
조병식 役



박윤희  
조한수 役



임지환  
조원우 役

